

[생방송스타뉴스] 송중기→구준엽, 다문화가정 이룬 ★ 누구?

김유진 기자 | 승인 2023.02.03 19:36

[위클리 핫이슈] 송중기 구준엽 등 다문화가정 이룬 ★ 누구?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배우 출신 케이트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결혼한 스타들의 러브스토리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스타 다문화가정의 변천사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다문화가정 100만 시대, 연예계에도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일년새 벌써 3커플이나 탄생했는데요.

송중기에 앞서 지난 해에 가수 구준엽이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결혼해 대만 '국민 사위'로 떠올랐고, 가수 빈지노도 독일 국적의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와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열 살 연하의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깜짝 결혼한 배우 류승범 등 다문화가정 스타들이 근래들어 더 많아졌죠.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은 대표적인 국제커플로,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만추'에서 배우와 감독으로 처음 만나 2014년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나서는 모습을 '생방송스타뉴스'가 단독 포착한 바 있는데요.

[현장음: 취재진] 두분 비밀결혼하신 소감 좀 짧게 들을게요

[현장음: 김태용] 아닙니다. 예

[현장음: 취재진] 행복하세요?

[현장음: 김태용] 하하하

뮤지컬배우 전수경도 지난 2014년 유명 호텔 총지배인이자 국보급 문화재 환수에 기여한 고 조창수 여사의 아들인 미국 국적의 에릭 스완슨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으로 갑상선암을 이겨낸 전수경의 러브스토리는 생방송스타뉴스를 통해 단독 공개돼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터뷰: 전수경]

Q. 갑상선암 극복 후 결혼한 소감?

"유머도 잘하고 그래서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일반 아저씨? 한국말을 주로 섞어 써요. 조금씩"

Q. 시어머니가 故 조창수 여사?

"우리나라 고종 옥새를 비롯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에 있던 유물들을 우리나라에 돌려보내자 결심을 하시고, 저한테는 좋은 롤모델로 꼭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의 연예계 진출 소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리틀싸이'로 유명한 황민우가 그 대표적인데요. 베트남 어머니를 둔 황민우는 최근 장성한 모습으로 동생과 함께 '미스터트롯2'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 황민우]

"저는 싸이 아저씨보다 더 유명한 세계적인 큰 가수가 될 거예요."

사실 과거엔 혼혈이라는 이유로 6개월간 방송출연 정지를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 출신의 스타들은 차별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에 편견에 맞서 스타가 된 주현미는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을 열었고, 인순이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인순이]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어"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데요.

[인터뷰: 이윤주 /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사회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약 13만7천여 명정도 되는데요. 다문화 학생이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국인과 구분지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문화 지원 센터'의 호칭도 '가족 지원 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 아닌 우리의 주민으로 또는 우리의 국민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여겨집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스타들의 증가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못지 않게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없는 시선과 포용이 요구됩니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김유진 기자 jjin@ihq.co.kr